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0. 16.(월)	담당부서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담당과장	정가희(+49-30-26952-174)	담당자	정가희(+49-30-26952-174)	

Project ON #2 - Wayfarer

(프로젝트 온 #2 - 여행자)

- 주독일 한국문화원 주최 2017년 제 2회 공모전 -

주독일한국문화원(원장 권세훈)이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문화원 내 갤러리 <담담>에서 김민호, 김방주, 박귀순, 플로리안 골드만 작가의 그룹전을 개최한다. 올해 진행된 미술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12명의 작가들은 주제 및 작품의 성격에 맞게 4인씩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전시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한 4명의 작가들의 전시로 개막식은 10월 26일(목) 오후 7시에 개최된다.

프로젝트 온의 두 번째 전시 주제 '여행자'

산업혁명 이전 여행은 느리고 위험하며 대부분 무역과 이주 같은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었다. 여행을 뜻하는 Travel의 어원은 노동, 고난이다. 하지만 기술혁명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한 지금 다시 두발로 여행을 시작하며 어려움과 느낌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전시 작가들은 바로 이런 도보 여행자들과도 같다. 작가 4명의 작품 속 시간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천천히 흐른다.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된 현대 시간의 개념을 전복시키는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수행과정을 담고 있다.

걸으면서 수집한 대상의 사진자료를 모아 겹겹이 쌓아 흐릿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김민호, 스스로의 몸을 작품 재료로 사용하며 수행자로서 작업하는 김방주, 다양한 주변 환경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작품 속에 그려내는 박귀순 그리고 문화가 생성된 근원을 연구하여 얻어진 정보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플로리안 골

드만의 작품이 한곳에 모여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장소를 창조했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에서 예술작품들을 통해 감속된 시간을 체험하고 분열된 시공간 속 미처 인지하지 못한 현대사회의 고독과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선까지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17년 2번째 정기 공모전

권세훈 원장은 “언제부터 고통으로 여겨지던 여행이 쾌락으로 바뀌었을까? 이번 전시는 교통의 발달 이후 소멸된 사이공간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번 제 2회 공모전시를 통해 한, 독 양국 사이 새로운 예술풍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작가소개

김민호(1975년생): 홍익대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김민호는 사진작업과 회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직, 간접적으로 수집한 이미지들을 쌓아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작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김방주(1985년생): 김방주는 서울대 졸업 후 2015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미대에서 수학중이다. 자신의 몸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작가는 노동과 수행의 형태를 지니는 작품을 통해 재치 있게 표현한다.

박귀순(1983년생): 베를린에 위치한 바이센제 미대에서 회화를 전공한 박귀순은 인간이 부재된 건축물 및 풍경을 작가 특유의 조용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그려내며 몽상과 실제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장소를 구축한다.



플로리안 골드만(1984년생): 영국 에딘버러 미대 및 베를린 국립예술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플로리안 골드만은 공공장소, 박물관 그리고 매체에서 보이는 문화의 구조와 및 인식을 분석하여 작품에 담는다.

□ 행사정보

- 행사명: 정기 공모전 <Project ON #2 - Wayfarer>
- 전시작가: 김민호, 김방주, 박귀순, 플로리안 골드만
- 전시기간: 2017.10.26. ~ 2017.11.18.
- 개막식: 2017.10.26.(목), 오후 7시
- 장소: 주독일한국문화원 갤러리 <담담>
- 주소: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 입장료: 무료

붙임 1. 전시회 안내자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독일한국문화원 큐레이터 정가희 (☎ +49-30-26952-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